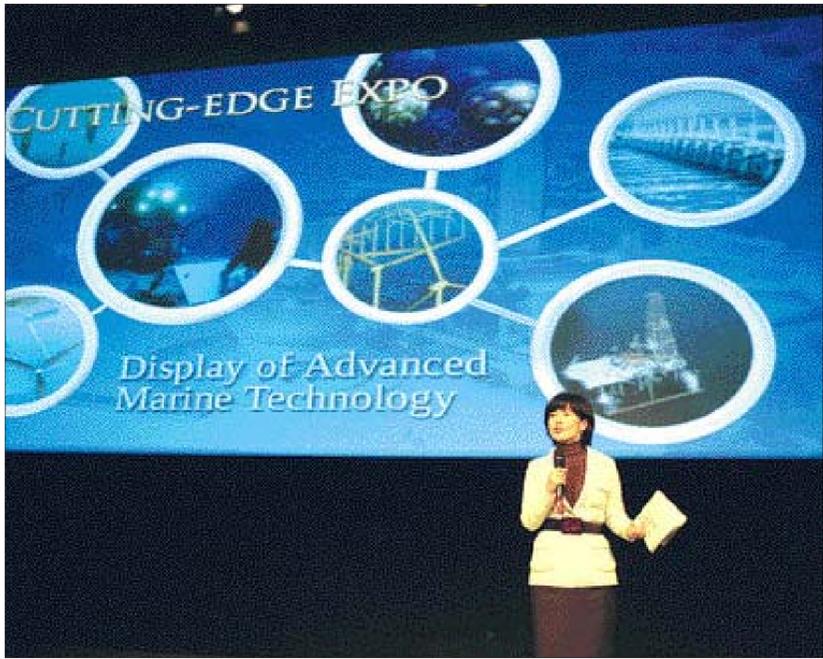


[엑스포 개최지 결정]

# 파리 총회장 안팎 “코리아 여수” 연호



26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의 한국 프레젠테이션 사회를 맡은 배유정(엑스포홍보자원위원)씨가 글로벌 엑스포를 지향하는 여수엑스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 국민응원단·교민 태극기 흔들며 응원 전남도청·여수시청 밤샘 ‘낭보’ 기원

26일 오후 7시15분(프랑스 현지 시간·한국시간 27일 새벽 3시15분),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된 파리 ‘팔레 드 콩그레’ 빌딩 2층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장은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넘쳤다. 전남의 최대 숙원인 여수엑스포 유치 달성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는 투표장에서 한국대표단은 투표에 나선 BIE 회원국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총회장에 자리 잡은 한덕수 총리와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한국 대표단은 손에 땀을 흘리며 140개 BIE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를 주시했다. 여수엑스포 유치를 갈망하며 한국에서 날아온 300여 명의 국민응원단도 총회장 안팎에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코리아, 여수’를 연호하며 낭보가 날아들기를 기원했다.

한국 대표단의 배스 캠프가 차려진 총회장 바로 옆 ‘메르디앙 에푸알’ 호텔에서 투표장에 들어가지 못한

관계자들과, 조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찾아 온 교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투표결과에 모든 촉각을 집중했다.

○140개 BIE 회원국 대표들이 전자투표로 개최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그러나 일반에 공개되는 프레젠테이션과는 달리 투표는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바람에 시간이 흐를수록 대표단과 응원단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총회장 밖은 한국 응원단의 함성소리와 함께 경쟁 후보국인 폴란드와 모로코 관계자들의 응원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전장터를 방불케했다.

○총회장 주변에는 80여 명의 한국 기자단과 함께 모로코와 폴란드는 물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신문·방송·통신사 기자들이 대거 운집했다. 외신 기자들은 그동안 언론에서 발표된 판세 분석과 해당국가 고위인사들의 전망,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토대로 특정국가의 승리를 점치기도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후회 없는 유지를 펼쳤다고 자부하지만, 유지전

## 축적된 기술·문명 전시하는 국제행사 국가단위 참여 등록박람회 5년마다 열려

### ■ 세계박람회란?

세계박람회(EXPO)는 세계 각국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양식을 전시를 통해 인류 문명이 나갈 방향과 전개될 미래상을 제시하여 새 시대의 출발을 촉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

BIE의 1988년도 개정협약에 따라 국제박람회는 그 성격과 기간, 주최국의 의무사항, 개최규모, 개최횟수에 따라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구분된다.

등록박람회(Registered Exhibition)는 공식 외교절차를 통해 국가단위로 참여하며 광범위한 주제나 전문적 주제를 선택하여 5년 주기로 열리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인정박람회(Recognized Exhibition)는 공식외교절차를 통해 참가국을 유치하고 전시테마가 특정되어야 하며 등록박람회 사이에 3주에서 3개월간 1회에 한해 개최할 수 있다. 2012여수엑스포는 인정박람회다.

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모로코가 한국의 지지기반인 중남미 회원국을 집중 공략,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투표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BIE 우렌민 의장과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을 초청해 아침을 함께하며 마지막 유치전에 나섰다. 이어 한국 대표단 대책회의를 열고 막판 판세와 투표 당일 전략을 분석·점검했다.

또 투표 직전 30분간 걸려 140개 BIE대표를 상대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한 총리가 영어와 불어로 직접 연설을 하며 표심을 유도했다.

한 총리는 또 ‘한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지지표를 흔들리는 모로코를 겨냥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다짐,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권 대표국의 이탈을 막는데 주력했다.

○27일 날이 저물면서 전남도청 로비인 운선도홀과 여수시청, 오동도 세계박람회홍보관 앞에서 벌어진 철야 응원전에는 수 백명의 주민들이 나와 밤새 유치를 기원하며 마지막 투표 당일 전략을 분석·점검했다.

흥겨운 공연과 함께 시작된 응원전에서 주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10년동안 유치 노력을 기울여온 2012여수엑스포를 반드시 품에 안아 지역발전의 앞장기는 기록으로 삼자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파리=홍행기자 redplane@

## 2010엑스포 상하이에 패배후 유치 재추진 2004년 12월 국가계획 확정후 본격 유치전

### ■ 2012여수엑스포 추진 일정

여수세계박람회는 전남도가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구상한 ‘그랜드 디자인’에서 태동해 두 번의 유치전을 거쳤다.

전남도는 엑스포를 낙후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 전환점으로 삼기위해 지난 1996년 9월 4일 정부에 ‘2010 세계박람회’ 전남 유치를 건의했다. 정부는 1997년 5월 31일 ‘제2회 바다의 날’행사시 전남 유치를 공식 발표했다.

2002년 12월 3일 제132차 BIE 총회에서 우리나라(여수)는 중국(상하이), 러시아(모스크바), 멕시코(케레타로), 폴란드(브로츠와프) 등과 2010엑스포 유치전을 벌였으나 4차 결선 끝에 중국 상하이에 아깝게 패배했다.

2010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2003년 1월 15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2012 여수엑스포를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12월 14일 2012여수엑스포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2일 BIE(세계박람회기구)에 2012엑스포 유치를 신청했으며 곧이어 5월 30일 중앙유치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유치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4월 9~12일 서울과 여수에서 실시된 BIE실사를 통해 여수엑스포 준비상황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9월 12~14일 제2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후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민간단체들은 여수엑스포

여수엑스포 추진 일정	
▲ 1996. 9. 4	전남도 정부에 2010엑스포 전남 유치 건의
▲ 1997. 5. 31	정부 전남 엑스포 유치 공식 발표
▲ 1999. 6. 14	2010 여수엑스포유치 국가계획 확정
▲ 2001. 5. 2	BIE에 2010엑스포 개최 신청
▲ 2002. 12. 3	2010 여수엑스포 중국 상하이에 패배 유치 실패
▲ 2003. 1. 15	경제장관회의 2012여수엑스포 재추진 결정
▲ 2004. 12. 14	2012여수엑스포 국가계획 확정
▲ 2006. 5. 22	BIE에 유치 신청
▲ 2007. 2. 8~9	제1차 국제심포지엄
▲ 2007. 4. 9~12	BIE 현지 실사
▲ 2007. 9. 12~14	제2차 국제심포지엄
▲ 2007. 11. 27	BIE 142차 총회 2012 엑스포 개최 결정 투표

유치 총력전을 펼치며 27일 새벽 3시에 실시된 개최지 결정 투표에 대비해 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1889년 첫 참가...1907년 경성박람회 첫 개최 1993년 대전박람회 엑스포 개최국 대열 합류

### ■ 한국 박람회 역사

박람회가 처음 세계 역사에 나타난 것은 BC 5세기경 고대 페르시아 때다. 페르시아의 아사스 페로스 왕이 국력을 과시해 인접국가의 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6개월간 열었던 ‘부의 전시’가 사상 최초의 박람회로 기록됐다.

이후 근대적인 세계박람회의 효시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큰 성과를 얻은 ‘런던 엑스포’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것은 고종 때인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갓·모시·뚝자리·가마 등 단순 생활용품만 출품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적 의미의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1907년의 경성박람회가 그 것이었다. 경성박람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당시 일본 통감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 이뤄졌다. 그 당시 출품 수는 7만 1천여 점이었다고, 관람자수는 20만 8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간 중 가장 흥미있는 것은 부인의 날을 세 차례 두어 부녀자만 입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내외를 엄격히 가리는 우리나라 풍속에 양성평등 개념을 주입하는 일종의 계발을 도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1915년 9월 11일~10월 13일까지 33일에 걸쳐 경북공에서 물산공진회(物産共進會)가 열렸다. 이는 일본의

정치 압력과 권위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인원을 동원해 그 관람자 수가 116만 4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1929년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선박람회’가 개최됐다. 이와 같은 행사들은 모두 일본인에 의해 이뤄지고, 또한 그들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상업적 박람회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마침내 한국은 19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전 세계박람회를 열어 현대 엑스포 개최국 대열에 합류했다.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열린 대전엑스포는 한국이 처음 국제 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아 개최한 박람회이며 주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 부제는 ‘진통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었다.

대전엑스포에서 우리나라는 첨단과학기술 능력을 전세계에 과시함으로써 국위가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대전엑스포에는 세계 108개국과 33개 국제기구, 대한민국의 2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1조 8천억 원을 들였고 1450만 명이 관람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 박람회 시설은 엑스포 과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개장했다.

이후 지난 1996년부터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이 27일까지 10년 동안 이어졌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www.mir25.com

광주·전남북 가맹점 100명

신발이 아닌 건강을 신는다! SRD

일등 가맹! 일등 품질! SRD가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1544-6780

문의전화 062) -672-6700